

# 통합사회에서의 특수교육

김용진(Yong Jin Kim)

## 1. 서론

먼저 오늘 동아시아 장애 학술 포럼 (EDSF)에서 '통합사회에서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통합사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합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 2. 통합사회

'통합사회(Inclusive Society)'란 개념은 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을 계기로 장애운동에 많이 알려졌다. 즉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이 실현되는 사회를 '통합사회'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통합사회에 대한 개념은 서구 유럽사회에서 장애 개념을 넘어서 더욱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이 하나의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통합사회를 이루고 있는 핵심요소는 무엇일까?

통합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이란 '사람들은 모두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명제로부터 개별적인 인간들은 모두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능력,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은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 즉 전지구적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 언어, 문화 등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사회 이전까지는 지리적 국경 안에서 민족, 언어, 문화 등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를 형성했지만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가 가능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거나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회를 제외하고는 인종, 언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다.

통합사회의 다른 중요한 속성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언급할 수 있다. 즉 사회 속의 개별적인 다양한 모든 구성원들은 장애, 인종, 문화 등에 상관없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합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속성들은 폄하되거나 가치절하되지 않으며 인정받고 존중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사회와 다양성은 서로 다른 모순적인 관계에 서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단일성에 근거한 사회에서는 '통합'이라는 용어는 나타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성에 바탕을 둔 사회가 '통합'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사회란 원 팀(One Team)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동질성'이나 '일치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사회는 개별적인 다양성을 경쟁이나 갈등관계로 파악하는 것 대신에 다양성을 존중하며 일치시키는 것 대신에 조화시키는데 노력한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결국 다양성들을 포용하는 사회이며 또한 다양한 속성을 지닌 모든 개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 3. 통합사회에서의 교육

#### 1)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통합교육

역사적으로 장애이 교육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분리되어 두 교육시스템을 지금까지 정당화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편의시설과 전문적인 교사가 있는 특수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의 일반학교로부터 분리는 무엇보다도 두가지 측면에서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장애를 소위 '정상'에 벗어난 것으로 무능력하며 계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 사회적 관점과 다른 하나는 일반교육의 수월성이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애 아동을 일반학교에서 분리 제외하여 특수학교에 편입시켰던 역사적 사실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기관으로서 특수학교는 실패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두 교육 시스템 중 특수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시스템을 경험하다가 학교 졸업 이후에 갑자기 통합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통합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또 다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

통합사회는 이러한 분리된 두 교육 시스템의 통합을 요구하며 특히 특수학교 시스템의 해체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통합사회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분류하거나 구분하여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배치하는 것은 통합사회의 지향점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장애아동은 일반학교, 장애아동은 특수학교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통합사회 앞에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며 장애 아동도 비장애 아동과 같은 학교, 같은 일반학급에 다니는 것을 권리로서 바라본다. 이것을 위하여 그동안 특수교육에서 인정받았던 병리학적, 의학적 관점에서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특수학교의 효과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 대신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포함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통합사회에서의 장애는 더 이상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양성 안에서 다른 능력으로 바라본

다. 그리고 그 다른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반교육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교육적 통합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 배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개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두 명의 교사 시스템(two-teacher system)의 시범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특수학교 증설 계획은 많은 중증의 장애 아동이 특수학교로 배치될 우려를 가지게 한다.

## 2) 반차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장애인은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차별을 받은 사회적 소수그룹에 속했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중심에는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교육으로부터 배제, 비장애아동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과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장애아동을 향한 다양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을 포함한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와 차별 사례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는 학교에서의 교육적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가해지는 신체적 학대,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및 거주시설에서의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언급할 수 있다.

통합사회는 차이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사회이다. 즉 소위 '정상'이란 가치를 전제하고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부정하고 장애,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사회에서의 특수교육은 '반차별교육'을 주요한 교육목표로 앞세운다. 반차별교육이란 장애를 정상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하는 것과 무능한 사람들로 인식하는 교육을 거부하고 차별을 발생시키고 정당화하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장애 뿐 아니라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저항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에서의 반차별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반차별교육을 통하여 장애 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비장애 학생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을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열등한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교육적 권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은 반차별교육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모두에게 반차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은 장애인을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식하려는 적극

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사회가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약자로서의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 아동의 통합교육,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이해교육이 아니라 반차별교육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장애를 도와주거나 이해해야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모든 아동처럼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장애, 인종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반차별주의를 지향하는 특수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장애,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사회로부터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 가치를 사회에서 실천하고 학생들이 배워 나가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 3) 다양한 관계를 통한 아동의 완전한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

통합사회에서의 교육은 다양한 관계를 창조하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이야기할 때 유럽 사회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권리침해와 차별을 사회적 환경 또는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동등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의 철학적 사상에서는 거대한 구조나 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 예로 사람 인(人)도 두명의 존재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사회는 두 명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으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음을 철학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적인 철학적 토대는 통합 사회에서의 교육의 모습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즉 교육은 다양한 아동들을 '관계'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들이 서로 조화롭고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것을 위하여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학생들 사이에서의 협력을 통한 평등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관계로 만들어 주는 교육의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부재와 그에 따른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중증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없이 소외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통합이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와 존엄성에 바탕으로 서로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사회에서의 교육은 차별과 억압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인간과 인간을 관계로 이어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 4. 결론

통합사회의 교육은 다양한 요구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포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란 작은 통합된 사회로서 장애, 국가, 종교, 인종 등을 넘어 모두에게 장벽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이 장애 비장애 구분을 넘어 이제는 완전한 통합교육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교육은 제일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